

디오니소스적 긴장

캐나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조각가 이원형 Won Lee.
조각가로서 치명적인 육체적 불편함을 얻었지만 이마저 그의 매체 조형성을 탐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사머니즘 가득한 추상적인 형태의 그의 작업은 동양의 선(禪)사상에 근접한 강한 디오니소스적인 양식으로 해석된다. 우리에게 낯선 작가인 이원형의 작품세계를 로버트 C. 모건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로버트 C. 모건 * 미술비평

한국 태생의 캐나다 조각가 이원형은 현재 토론토에서 거주하며 작업한다. 그의 작업실은 살롱 양식의 스튜디오와 뒤쪽으로 나있는 현관. 꽤 큰 지하창고가 있는 낡은 저택이다. 그곳은 그와 그의 아내가 거주하는 마을 반대편의 저택과는 거리가 있다. 그의 스튜디오에서 이원형은 드로잉작업을 하고 점토로 형태를 만들고 종종 그 형태들이 뒷마당에 있는 그의 가마 안에서 구워지기 전 추상적 형태로 모양을 다듬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토론토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지 않을 때, 형상들을 브론즈로 주조할 때면 그는 중국이나 멕시코로 여행을 한다. 이원형은 매우 많은 작품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작가이다. 한국에서 보낸 성장기에 소아마비에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의 높은 창작욕구를 막을 수는 결코 없다. 2미터 높이의 진흙모형을 만들 때면 그는 주저함 없이, 힘 없이, 종종 조수도 없이 작업한다. 초기 추상표현주의 조각가 루벤 네이커언처럼 이원형은 조각에 있어 영웅적 전통에 속해있다. 네이커언만큼 고전적 형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는 그의 형상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작업해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 때면 각각의 작품에 날카로운 시각을 지닌다. 조각가 자코메티의 후기 '존재론적' 작품과 비교해보면 어떤 면에서 각각의 디테일이 전체와의 관계에서 희석된다. 이원형의 형상은 텍스처를 포함하여 전체 패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촉각적 반향으로 주위의 부분들을 새겨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물질의 느낌을 높이는 표면의 작은 면과 면에 액센트를 주려하는 것이다. 이원형은 구상화가로 시작했지만, 지난 10년간 조각가로서 그의 움직임은 - 몇 년간 작업의 공백 이후에 - 매체의 조형성과의 강력한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자 질 들뢰즈 일독가인 이원형은 형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보다 전통적인 매체를 선호한다. 그는 동서양의 작가들과 함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공유해왔던 매체인 브론즈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을 추종한 다른 사람들처럼 '설치예술'이나 DVD 프로젝션에는 전혀 끌리지 않았다. 이원형은 작업을 형성하는 개념만큼이나 과정을 즐기며, 집에서 들뢰즈를 읽는 것만큼 로댕, 곤잘레스, 피카소의 작품을 관람하곤 한

